

조선혁명가들의 결정적역할에 의한 국제연합군 편성과 역사적의의

부교수 안 영

1. 서 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42년 7월에 우리는 소련, 중국의 동지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면서 국제반제력량과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격멸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김일성동지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 제8권 233페이지)

1940년대에 이르러 항일혁명투쟁은 조국해방위업수행에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이 시기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것은 주체31(1942)년 여름부터 소련경내에서 중국, 소련의 전우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일제를 최종적으로 격멸하기 위한 정치군사적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간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련, 중국의 무장력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공동투쟁을 벌린것은 조선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것이였다고 평가할수 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세 나라 무장력의 국제적연합을 가장 적중한 시기에 가장 리상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용의주도하게 해결해나감으로써 일제의 격멸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소련원동군의 일부 부대들로 이루어진 국제연합군편성에서 조선혁명가들이 논 역할과 국제연합군편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해명하려고 한다.

2. 본 론

2. 1. 국제연합군편성의 역사적필연성

매개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국제혁명력량과 굳게 단결하며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실현하는것은 우선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앞두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반드시 중시해야 할 전략적인 문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결정적인 최후공격작전을 위해 대오를 정비하고 핵심을 보존육성

해가면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최종준비를 갖추어나가던 이 시기 국제정세발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1941년 6월 소도전쟁이 발발하였으며 1941년 12월에는 일제침략군이 하와이에 있던 미군기지 진주만을 불의에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강점한 일제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결속짓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도발한것은 무모한 도박에 불과한것으로서 조, 중 두 나라 혁명가들에게 최후결전의 시기를 앞당길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고있었다.

이미 앞선 침략전쟁들에서 수많은 인적 및 물질적손실을 당한 일제는 이런 큰 전쟁을 동시에 치를만 한 국력이 없었다.

당시 일제는 자기의 동원능력을 최대한 다 발휘한다 하여도 침략전쟁확대에 필요한 병력을 보장할수 없는 형편이었다. 9.18사변후부터 7.7사변까지의 기간에 일제는 만주에서 만도 근 20만에 달하는 병력의 손실을 보았다. 중일전선에서는 해마다 큰 손실을 보고있었는데 이미 최정예부대의 반수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그런데 일제의 후비병력원천은 이미 고갈되어있는 형편이어서 그것을 보충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일제가 아시아전역으로 확대되는 전선의 병력수요를 도저히 충족시킬수 없으리라는것은 명백하였다.

게다가 일제는 현대전에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중요전략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있었으며 보유하고있는 전략물자의 예비도 한계점에 이르고있었다. 간삼봉전투시기에 일제가 사용한 탄알들이 1920년대에 생산한것들이었지만 소할바령회의직전에는 1939년 이후에 생산한것들을 쓰고있었던 사실은 탄약의 예비도 바닥이 났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군수물자보급면에서의 일제의 난관은 앞으로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될수록 더욱 커질것이였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남은 국력을 탕진하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다.

그런데 일제가 세계제패의 야망실현에 미쳐날뛰는것으로 보아 소련에 대한 침략전쟁까지 도발할수 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의 혁명가들이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내용으로 하는 폭넓은 공동투쟁단계에로, 국제반제반파쇼투쟁의 거창한 흐름에 합류하는 새로운 공동전선단계로 넘어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위업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를 중국적으로 피멸시키기 위한 세계사적과업을 동시에 수행할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조중 두 나라 무장력이 소련의 원동에 하나의 기지를 가지고있고 또 소련원동군이 익측에 존재하는 조건에서 공동항일의 폭과 심도를 더욱 넓히고 그것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하였다.

1941년 3월 중순까지 계속된 하바롭스크회의이후 소련측은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에 원동지역에 2개의 기지를 제공해주었다. 하나는 워로쉴로브군처에 있는 남야영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바롭스크부근에 설치된 북야영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집단이 동북항일련군의 전우들과 함께 소련의 원동에 새로운

림시기지를 꾸린 다음 국내와 만주일대를 드나들면서 소부대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된것은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되었다.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실현하는것은 또한 일제와의 전쟁에 박두한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는데서 중시해야 할 전략적인 문제였다.

원래 파쑈도이쉴란드와 함께 일본은 소련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한 세계최악의 호전국가였다. 더우기 소련과 일본사이에는 로일전쟁당시부터 역사적으로 형성된 뿌리깊은 모순관계가 있었다. 그 모순관계가 쏘일간의 새로운 전쟁으로 번져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로부터 소련은 국가건립의 초기부터 동쪽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어왔다. 특히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을 통하여 일제의 령토팽창야욕과 강도적본성을 다시한번 충분히 엿보게 된 소련은 일본이 어느때든지 《북공》을 단행하리라는것을 각오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를 각방으로 모색하여왔다.

그러나 1940년대초 소련과 일본 두 나라는 자기들의 정치군사적리해관계로부터 즉시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향에서 정치군사적외교를 추진시켰다.

당시 소련은 서부국경쪽으로 질풍같이 육박해오는 도이쉴란드와의 충돌을 거의 불가피한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도이쉴란드가 서쪽에서 쳐들어올 때 일본이 동쪽에서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올수 있었다.

큰 땅덩어리의 한쪽은 유럽에 속해있고 다른 한쪽은 아시아의 넓은 판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련으로서는 그 넓은 국경선의 한쪽만을 지킨다거나 어느 한쪽의 적을 막을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것만으로 국가방위에 완벽을 가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소련은 모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서나 도이쉴란드와 일본의 동서협격을 피해보려고 하였다. 소련은 반공의 돌격대로 등장한 도이쉴란드의 침공을 미연에 방지해 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면서 도이쉴란드와의 있을수 있는 전쟁을 피하든가 최소한 지연이라도 시킬 목적으로 1939년에 도이쉴란드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일본과의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침공을 예방하려고 하였다.

이런 맥락속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결과물이 바로 쏘일중립조약의 체결이었다.

이 조약의 목적은 쏘일쌍방이 서로 상대를 견제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쏘일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었다.

그리하여 소련은 도이쉴란드와 힘겨운 전쟁을 진행하면서도 대일전쟁준비를 과제로 제기하고있었다.

대일전쟁준비에서 소련이 추구하고있던 가장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가 국제항일력량과의 연합을 실현하는것이였다.

그런데 당시 동방에는 소련을 무력으로 도와줄수 있는 동맹국이 없었다.

중국이 일본과 싸우고있었지만 그것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존재였지 소련을 지원할수 있는 동맹자는 못되었다.

동방에서 소련을 무장으로 도와줄수 있는 존재란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소련은 동북에서의 항일무장력량을 소련원동군의 일익으로, 그의 외선세력으로 보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소련원동군무력의 별동대로 삼으려고 하였다.

실지로 국제당과 소련은 1939년부터 조선인민혁명군 1로군과의 뉴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였다.

1939년말에 국제당이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에 연락원들을 보낸 사실을 두고 일제의 관헌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강덕 6년(1939년) 10월 11일 김일성비가 화룡현 삼도구 서북쪽 침봉밀림속에 있을 공비와 같은 복장을 하고 권총을 휴대한 로씨야인 8명이 조선인통역 두사람과 함께 김일성을 찾아와서 중요담화를 했다. 그때 중요간부이외에는 누구도 곁에 접근시키지 않고 약 10일간 머물러있은 다음 김일성비단가운데서 허약자 12명을 데리고 떠나간 사실이 있다. 그 로씨야인은 소련에서 연락원으로 온 사람들이라 하며 ...상세한것은 명확치 않으나 직접 소련에서 중요한 사명을 띠고 연락을 온것이 아닌가고 보아진다.》(훈춘령사 기우씨의 보고, 소화15년(1940년) 7월 26일)

《다음으로 당의 지도에 대한 령도로선문제인바 이것은 작년(1939) 12월 소련에서 직접 제1로군에 4명의 연락원을 보내왔는데 그 연락내용과 목적은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러한 사실은 금년(1940) 1월 22일 무송에서 압수한 위증민이 양정우앞으로 보낸 서신속에서 그 점에 대하여 명백하게 쓰고있으며 경로는 돈화에서 대포시하에로 들어오고 다시 량강구를 거쳐 ...왔다는것이 분명하다.》(《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의 동향》《사상월보》 제77호, 사법성 형사국, 소화15년(1940년) 11월)

국제당이 자기들이 주관하는 회의에 조선혁명가들을 초청한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적의 배후에서 소련을 무장으로 지원할수 있으리만큼 강력한 역량으로 자라난 결과였다.

사실 조선혁명은 거의나 국제당의 시야밖에 놓여있었다.

국제당이 안중에 둔것은 중국이나 인디아와 같은 큰 나라들의 혁명이였다.

국제당은 같은 중국혁명인 경우에도 관내의 혁명투쟁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돌렸지만 동북혁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동북혁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면 제2로군이나 제3로군에 치중했을뿐이였다. 쏘만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이나 남만의 제1로군에는 거의 낯을 돌리지 않았다.

동북혁명이나 조선혁명에 랑담하고 무관심했던 국제당이 1939년에 이르러서는 연락원을 보내어 조선인민혁명군과 1로군의 대표를 소련에 초청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한것은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때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이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여 강력한 배후공격작전을 벌리는것을 목격하고 만주빨찌산이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것을 알게 되었기때문이다.

국제당과 소련은 1940년에도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에 연락원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1940년대 전반기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 중, 쏘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실현하는것이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할뿐아니라 소련의 대일전략과도 일치하는것이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이처럼 1940년대 전반기 조, 중, 쏘 세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은 쏘도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당시의 급변한 정세속에서 조선과 중국, 소련 매개 나라의 민족적리익과 세 나라 혁명의 공동의 리익을 위한 필연적과제로 제기되였다.

2. 2. 국제연합군편성에서 는 조선혁명가들의 역할

1940년대 전반기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실현하는데서는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난관을 타개하고 국제연합군을 편성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무엇보다도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실현하는 문제를 매개 나라 무장력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발양하여 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1940년 12월부터 1941년 3월 중순까지 하바롭스크에서는 조, 중, 소 세 나라 군사지휘관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논의된 중심의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의 장래활동방향에 관한 문제였다. 결국 조선과 동북에서의 유격투쟁과 소련군대와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그것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적응시키고 강화발전시켜나가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바롭스크회의에 참석하시였다.

당시 제1로군 군장 양정우는 희생되었고 1로군 정치위원이며 남만성위 서기인 위증민은 병중에 있었다. 그리고 방면군군장들인 조아범, 진한장 등은 모두 전사한 상태였다.

이런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안길, 서철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을 대표하시였을뿐아니라 중국공산당 남만성위와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도 동시에 대표하시였다.

1941년 9월 15일 왕신림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보중은 《김일성은 남만 제1로군에서 현재 유일하게 중요한 간부이다. 양정우, 위증민 두 동지가 희생된 이후 오직 김일성이 남만유격운동의 령도와 남만전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책임지고있다.》고 썼다.

회의에는 동북항일련군 제2로군을 대표하여 주보중, 최용건, 제3로군을 대표하여 장수전, 김책 등과 소련원동군 대표, 국제당대표도 참가하였다.

하바롭스크회의가 열릴 당시 국제당대표는 소련원동군 정보부장 류첸꼬였고 그의 가명은 왕신림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부대들이 소련경내에 들어가 활동하던 시기 국제당과 소련당, 소련원동군을 대표한 인물은 자기를 왕신림으로 행명하였다. 하바롭스크회의가 마감고비에 이르렀을 때 소련원동군의 소르긴장령이 류첸꼬가 맡아하던 임무를 넘겨받았는데 그도 역시 왕신림이라는 이름으로 행명하였다.

하바롭스크회의에서 소련측은 연합한 파쑈들과의 싸움에서 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북항일련군이 독자성을 포기하고 소련원동군과 통합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조선혁명이나 동북항일운동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치군사적리익만을 앞세우면서 동북항일련군을 소련원동군의 직속부대로 만들자는것이였다.

동북의 무장부대들이 독자성을 포기하고 소련군의 지휘체계에 망라될데 대한 문제는

이미 동북항일련군측과 소련군사당국이 참가하는 협의회에서도 소련측에 의하여 제기되었던적이 있는 문제였다.

소련이 원동군과 동북항일련군을 하나로 합치는 군사체계의 창설을 제안하게 된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에 소련침공의 구실을 주지 말자는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일작전이 벌어지게 될 경우 원동군과 협동할수 있는 동맹자를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소련측의 제안에서는 소련이 존재하고 소련혁명이 잘되어야 중국혁명이나 조선혁명도 잘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풍기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동북항일련군 지휘관들은 소련측의 립장이 매개 나라 혁명의 독자성을 존중할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무시한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두 나라 지휘관들이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다보니 문제해결을 보지 못하고 논의만 거듭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 중, 소 무장력의 단결과 협조를 실현하는 문제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국제당과 소련원동군의 대표들이 혁명투쟁에서 자주성은 생명이라는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제당이나 소련군부측의 의도를 충분히 리해할만 하지만 그러나 조선혁명이나 동북혁명을 위하여 피를 흘려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싸워야 할 우리들에게 독자성을 포기하고 소련군대에 통합되라는 제의에는 심중한 문제가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이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기의 힘으로 수행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 자주성, 독자성이 없이 남을 쳐다보면서 남의 덕으로 혁명이 승리할 때를 기다린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소련인민이 10월사회주의혁명을 단행할 때 남의 힘을 믿고 남을 쳐다보았는가, 그들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자기 머리로 생각해낸 옳바른 전략전술을 세우고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켜 혁명에서 승리하였다, 이것은 혁명수행에서 자주성과 독자성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실례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국제당과 소련군부측의 대표들은 자주성, 독자성문제는 혁명의 원리로 보나 력사적경험을 봐도 혁명의 생명선이며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열쇠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조, 중, 소 무장력의 단결과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 립장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련측이 승리한 나라의 혁명을 보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승리하지 못한 나라의 혁명을 추진시키는것도 그만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데 대하여서와 동북혁명이나 조선혁명을 경시하게 되면 소련에도 리롭지 못하다는데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이나 동북혁명에서 자기의 의도대로 지휘할 무장력이 없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며 식민지나라에서의 혁명은 혁명적무장력의 담보없이 성공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피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만일 하나의 군사체계에 통합한다면 소련군대의 어느 한 군부대의 전투력은 강화될지는 몰라도 당신들이 일제침략군과 맞서는 날에는 적배후의 제2전선을 잃게 될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군사전략적으로는 더 불리

한 형편이 초래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동지들과 함께 항일련군을 못하고 공동투쟁을 하면서도 자기의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그러니 공동투쟁을 해도 말쟁이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항일련군에 용해시키는것도 반대하지만 소련군대에 배속시키자는것도 반대한다, 그것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독자성을 무시하는것으로 될것이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그리고 소련원동군과의 공동투쟁의 형식과 방법은 소련에도 도움이 되고 조선혁명이나 중국혁명의 리익에도 다같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편 동북항일련군 지휘성원들에게 소련측의 제안이 일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씨앗은 있다고, 그러니 무턱대고 배척하지 말고 다같이 동지적이고 사심 없는 태도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공동의 리익에 맞게 문제토의를 빨리 끝내도록 하자고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원칙적립장은 국제당과 세 나라 지휘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조, 중, 소 세 나라 혁명적무장력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이처럼 조선혁명가들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하바롭스크회의에서는 조성된 긴박한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조, 중, 소 세 나라의 무장력을 각기 독자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통합할데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게 되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다음으로 동북지방에서 무장부대들의 유격활동방식을 옳게 확정해나가도록 하였다.

하바롭스크회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동북지방에서의 무장부대들의 유격활동방식에 관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놓고 소련군측에서는 조성된 정세로 보아 동북에서 활동하는 무장부대들이 자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유격투쟁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가는것이 상책일것 같다고 하면서 원동지구엔 몇개의 기지를 제공하고 일정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할 용의가 있으니 유격활동에 불리한 겨울철에는 기지에 들어와서 훈련하고 여름철에는 전장에 진출하여 정찰과 소규모전투를 벌리는 방법으로 활동할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북항일련군의 일부 지휘관들은 대규모의 활동으로부터 소규모적활동으로 넘어가는것은 혁명에서의 후퇴이며 소규모활동으로써 언제 일체를 타승하겠는가, 숨어다니면서 소규모적인 활동이나 해서야 체면이 서는가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금후 유격활동방식문제와 관련하여 력량보존에 중점을 두고 소부대활동을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이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부대활동을 고집하는 동북항일련군의 지휘관들에게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하시며 혁명의 오늘뿐아니라 래일을 위해서도 력량보존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체를 쉽게 패망시킬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일체를 패망시키

고 조국을 해방하자면 조선인민혁명군도, 동북항일련군도 력량을 보존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 소부대활동을 하게 되면 전민항쟁을 위한 조직건설도 활발히 벌릴수 있고 식량도 쉽게 구할수 있다, 그리고 활동을 하기에도 편리하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지난해 여름부터 소부대활동을 해보았는데 결과가 대단히 좋았다고, 해볼만 한 일이라고, 대부대활동은 필요한 때 벌려도 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이 원동에 틀고앉아 훈련이나 하고 소소한 군사정치활동이나 하면서 무난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쏘련측의 제기에 대해서도 력량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있으면 혁명을 전진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소부대를 무어가지고 국내와 동북지방에서 정치군사활동을 계속 활발히 벌려나가겠다고 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쏘련군측과 동북항일련군의 지휘관들이 소부대활동의 투쟁방식과 내용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도록 하시었다.

당시 국제당이나 쏘련군측에서는 동북에서의 유격활동이 일체에게 쏘련침략의 구실을 줄수 있다는 위구로부터 소규모의 활동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활동방식,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항일련군의 지휘관들 역시 지난 시기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배합하는 의미에서의 소부대활동에 대해서는 리해하고있었지만 전략적으로 새로운 투쟁단계를 의미하는 소부대활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적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부대활동이라는것은 단순하게 소규모의 전투행동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있는 모든 곳에 혁명조직망을 펴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며 적을 최대한 고립시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수많은 소부대, 소조를 무어가지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정치사업, 조직건설사업을 적극 벌려 인민의 보다 뜨거운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혁명투쟁전반을 계속 고조제로 이끌자는것이 소부대활동의 투쟁방식이며 내용이라고 볼수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쏘련군측과 항일련군측이 소부대활동을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의 정당성과 소부대활동의 투쟁방식과 내용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게 됨으로써 하바롭스크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활동에서 기본을 소부대활동, 군중공작, 조직건설, 실력배양에 둘데 대한 합의가 이룩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후 시기의 소부대활동에는 동북항일련군 부대들도 참가하게 되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다음으로 조, 중, 쏘 세 나라 무장력의 가장 리상적인 련합형태에 관한 구상을 내놓고 국제련합군편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였다.

조, 중, 쏘 세 나라 무장력의 협동을 어떤 형태로 실현시키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의 민족적리익과 세 나라 혁명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선과 중국, 쏘련의 혁명가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련합무력을 어떤 형태로 편성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바롭스크회의후 조, 중, 쏘 세 나라 혁명적무장력이 서로 지지협조하면서 진행한 소부대활동과 정찰활동, 집중적인 군정훈련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연구하시면서 세 나라 무장력의 리상적인 련합형태를 국제련합군으로 보시었다.

국제연합군형태는 세 나라 무장력이 하나의 군사체제로 연합하되 매개 나라 무장력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일제를 피멸시키기 위한 공동작전, 공동행동을 성과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연합형태였다.

이 연합형태는 조중 두 나라 무장력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소련군의 군사체계에 통합시키려고 하던 일방적인 견해와 자기 나라 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국제적연합을 달가워하지 않고 배척하던 견해들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매개 나라 혁명과 혁명군대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세 나라 혁명무력이 공동투쟁을 잘해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연합무력형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1(1942)년 봄 소련의 고위군사관계자들을 만나시여 국제연합군편성과 관련한 전략적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력독립은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지만 그것은 국제적협조나 국제혁명력량과의 연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나라의 혁명력량과 연합하여 투쟁하는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은 중국과 소련측의 정치군사적요구와 일치되었으며 이것은 소련군사당국과 국제당에 그대로 전달되어 시급한 현안문제로 제기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제연합군편성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중 두 나라 혁명적무장력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국제당 및 소련군사당국과 진지하게 협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원동의 립시가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인 안길동지와 동북항일련군안의 조선인지휘관들인 김책, 최용건, 강건동지들과 협의를 하시고 그후 주보중, 장수전 등 동북항일련군 제2, 3로군 지휘관들과도 협의하시였다.

그들은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은 성숙된 요구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하였다. 국제당과 소련의 군사당국도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1(1942)년 7월 중순 동북항일련군과 소련원동군의 군사간부들과 함께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문제를 최종적으로 토의하시였다.

세 나라 군사간부들은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의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국제연합군을 편성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이어 소련원동군 사령관 아빠나쎬코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연합군편성문제는 최종적으로 략착되었다.

1942년 8월 1일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소련원동군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원동기지에서서는 국제연합군의 편성이 선포되었다.

조, 중, 소 세 나라 혁명군대의 연합무력인 국제연합군은 형식상 소련원동군 독립88려단(대외번호 8461보병특별려단)으로 불리우는 특수부대로 조직되었다.

국제연합군은 자기의 존재와 활동의 비밀을 보장하며 위장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축소하여 편성하는 원칙을 세워 려단규모로 조직되었으며 군사관등급도 적들의 첩보암해활동으로부터 군사정치간부들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정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집단은 제1지대로 편성되었으며 여기에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의 잔존성원들이 망라되었다. 제1지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국제연합군의 조선지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1지대의 지휘를 맡으시였으며 정치위원으로는 안길동지가 임명되었다.

려단에는 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이 각급 단위들에 조직되었다.

려단의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 피복과 식량을 비롯한 후방물자들에 대한 보급은 소련 원동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국제련합군이 편성되던 시기에 모든 부대들이 북야영에 집결하였다. 남야영에 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도 북야영으로 이동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일부 성원들은 소련원동군의 요청에 따라 소련군 경찰부대에 파견되는 국제련합군의 별동대에 망라되어 활동하였다.

이처럼 국제련합군의 조직과 그 강화발전을 위해 기울인 조선혁명가들의 고심어린 노력은 혁명투쟁에서 매개 나라의 자주성, 독자성과 국제적인 단결과 협조의 두개 원칙을 옹고 결함시킨 모범으로 되었다.

2. 3. 국제련합군편성이 가지는 역사적의의

조선혁명가들의 결정적인 역할에 의한 국제련합군의 편성은 조선혁명과 국제반제반파썸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었다.

조, 중, 소 세 나라 혁명무력의 련합무력인 국제련합군의 편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았다.

국제련합군이 편성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의 주력군이며 핵심대오인 조선인민혁명군을 보다 강화하고 그 활동을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국제련합군의 편성을 계기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정규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국제련합군인 국제려단은 정규군부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정규군의 지휘체계가 서있었고 정규군에서와 같이 각 병종구분대들이 조직되어있었으며 무장장비도 정규무력인 붉은군대의 무장장비와 비슷하였다.

정규군의 면모를 갖추게 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유격전은 물론 현대전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으며 최후공격준비를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군의 체제를 갖춘 무장력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발전력사에서 새로운 질적전환을 가져온 특기할 사변이었다.

창건되어 10년세월 유격활동을 벌려왔으며 주체30(1941)년 3월 지대편성을 계기로 하여 자기의 면모를 점차 정규군의 체제로 개편하기 시작한 조선인민혁명군은 국제련합군의 편성을 계기로 하여 정규군의 체제를 정연하게 갖추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정규군의 체제로 이행함으로써 유격전과 정규전을 다같이 수행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었으며 조선인민은 정규군의 체제를 갖춘 강력한 혁명무력을 주력군으로 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보다 성과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국제련합군의 편성을 계기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자체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며 민항쟁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더욱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자체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는것은 소할바령회의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앞에 제기된 전략적과업이었으며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것 역시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로선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국제련합군의 편성으로 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자체의 력량을 체계적으로 보존축적해나갈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우선 안전한 기지에 의거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집단은 국제련합군이 편성됨으로써 원동의 기지를 조국해방위업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 안전한 기지로 리용하면서 자기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쏘련군대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식량과 피복, 무장장비 등 군사후방물자를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다. 원동의 기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준비와 훈련, 휴식 및 후방공급사업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안전하고도 믿음직한 기지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지구비밀근거지를 중심적령도거점으로 하여 국내의 전반적지역에 설치된 비밀근거지들, 립시비밀근거지들과 함께 안전하고도 고정적이며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후방조건이 원만히 보장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기지에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또한 체계적인 군정훈련을 더한층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 전체 성원들의 정치군사적자질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국제련합군의 편성을 계기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군정훈련은 정규군의 군관학교의 강령에 따라 현대전훈련을 기본으로 조, 중, 쏘 세나라 군대의 련합작전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방향에서 항공육전대훈련, 해안상륙훈련을 비롯한 특수병종훈련까지를 포함하여 폭넓게 진행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 성원들의 자질은 물론 부대들의 현대전작전수행능력이 원만히 갖추어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경내에 훈련기지를 정하시고 대일최종작전을 준비하신 사실과 관련된 적측의 자료들중에서 일부를 소개한다.

《김일성의 동정에 관한 건

입쑈중의 김일성은 …지난해 여름 쏘련 하바롭스크로부터 …연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중공요인 모택동, 하룽, 강생 등과 회견하고 일쑈개전전후에 있어 중공당군과 항련군과의 합작행동 기타 항련군의 금후에 있어서의 활동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협의를 하고 다시 연안부근에 있는 조선인공산당원과도 회견하고 각종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일성은 작년 말경에 그곳에서 비행기로 쏘련에 돌아와 목하 쏘련 하바롭스크부근에 있으면서 … 대만선 첩보 및 사상공작에 노력하고있다. 또한 김일성은 하바롭스크부근 야영학교에 조선인, 중국인 공비 기타 입쑈한 선만인불령분자, 피랍치자 등 약 300명을 수용하여 하바롭스크 붉은군대…의 지도원조하에 일쑈개전전후에 일제히 만주로 들어와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할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끔 훈련교육중이라 한다.》(남양경찰서장이 함경북도경찰부장에게 보낸 경찰자료, 소화19년(1944년) 2월 21일)

《김일성은 지금 연안에 있으며 열하성에 군대를 들이밀고있다고 한다. 또 니콜라예스끼(연해주)에는 순전히 조선사람들로 편성된 4개 사단의 군대가 있으며 일쑈개전의 시기에는 4개 사단의 군대가 결사대로서 북조선지방에 상륙하거나 혹은 락하산을 타고 조선내에 강하할것이다.》(《성대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전쟁후방교란 및 무장봉기 불은책동사건철(4)》 고원경찰서, 소화20년)

《씨베리아를 횡단해 돌아온 사람이 연설하면서 씨베리아의 어느곳에 주위가 10리나 되는 진지가 있고 거기에 조선기발이 꽂혀있으며 조선인군대가 수비를 서고있는것을 보았다고 말한 모양이다.》(《특고월보》 내무성경보국, 소화19년(1944년) 2월분 79페이지)

조선인민혁명군은 또한 소부대활동을 가일층 강화하여 전민항쟁준비를 보다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국제련합군이 편성되어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집단이 주로 원동의 기지에 주둔하여 작전준비와 군정훈련을 진행하게 된 조건에서 전민항쟁준비사업이 보다 더 계획적으로, 전면적으로 벌어질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서는 통일적인 작전방안에 기초하여 수시로 잘 훈련되고 잘 무장한 소부대, 소조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전국도처에서 벌어지는 전민항쟁준비사업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변화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그 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조치들을 제때에 취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각지의 소부대, 소조들은 사령부의 의도를 제때에 전달받고 항쟁대오의 조직과 확대, 무장봉기조직들의 강화, 반일대중투쟁의 조직 등 항쟁준비사업을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국제련합군의 편성은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제련합군이 편성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국내의 혁명조직성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이 사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침략자들을 중국적으로 괴멸시킬 강대한 무장력을 편성하신 격동적인 사변으로 받아들이고 수령님께 드리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신심과 기쁨에 넘쳐 전민항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제련합군이 편성됨으로써 다음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은 국제반제력량과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격멸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기여할수 있게 되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조선혁명은 원래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웠다.

국제련합군이 편성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조국해방의 위업과 함께 일본군국주의 자체를 중국적으로 괴멸시키기 위한 세계사적인 과업을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이미 조선인민혁명군의 독자성은 독자성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무장부대들과 함께 동북항일련군을 못하고 공동투쟁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있었다.

공동의 적인 일제를 반대하여 진행한 조중무장력의 공동투쟁은 두 나라 혁명의 리익은 말할것도 없고 항일혁명의 객관적요구에도 완전히 부합되는것이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국제련합군을 편성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면서 국제반제력량과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격멸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국제련합군편성은 원동의 군사정치정세를 국제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켰다.

국제련합군의 편성으로 우선 쏘련이 그 덕을 적지 않게 보게 되었다.

당시 쏘련은 일제의 쏘련에 대한 침략전쟁도발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데 대처하여 그를 저지파탄시키고 일제를 괴멸시키기 위한 대일작전준비를 강화하고있었다.

그러나 서방에서 파죽지세로 달려드는 파쑈도이칠란드의 공격을 저지시키는데 많은 력량을 돌려야 했으므로 일제가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고있는 동방에는 적은 력량만을 배

치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소련은 동방에서 일제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킬수 있는 군사적력량을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곤난을 겪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국제련합군이 편성됨으로써 소련으로 하여금 일제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군사정치적력량을 확보하고 중국동북지방과 조선에서의 군사작전수행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새로운 특수부대를 가질수 있게 하였다.

국제련합군의 편성은 또한 중국혁명에도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오랜 기간 투쟁해온 중국인민은 국제련합군의 편성으로 하여 일제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킬수 있는 국제적인 강력한 련합무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동북의 혁명무력은 정규군의 테두리안에서 동북해방작전에 필요한 가장 현대적인 작전수행능력과 장비를 갖추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제련합군의 편성은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의 련합을 두려워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것은 혁명력량의 단합이며 단합된 혁명력량은 제국주의를 멸망시키는 철추로 된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이 벌어지자 그 첫 시기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이 중국인민과 반일공동전선을 형성하는것을 파탄시켜보려고 온갖 모략을 다하였으며 조중 두 나라 혁명적무장력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고립압살해보려고 갖은 흉책에 매여달리었다.

그러한 일제에게 있어서 1940년대 이르러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에 의한 국제련합군이 편성된것은 매우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특히 대쏘전쟁준비에 피눈이 되어 날뛰던 일제는 국제련합군의 존재에 대하여 커다란 위구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세가 조성되면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이 공동으로 저들의 마지막숨통을 조이는 일대 공세를 취할것이라고 하면서 크게 전황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의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조선인민자체의 투쟁으로서 독자성을 띠게 될것이라는것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무장투쟁이 국제반제력량과 련합하는 경우 매우 큰 힘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국제련합군의 편성은 또한 유럽에서 반파쇼항쟁력을 결속하는데 좋은 본보기로 되었다.

국제련합군의 편성과 활동을 본보기로 하여 파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유럽나라인민들의 국제련단들이 창설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1943년에는 소련령토에서 붉은군대와 함께 파쇼도이칠란트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참가할것을 목적으로 한 체스꼬슬로벤스꼬인들의 부대가 조직되었으며 체스꼬슬로벤스꼬려단은 끼에브해방전투와 벨라야제르꼬비해방전투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군사작전들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뿔스까도 소련령토에서 파쇼도이칠란트를 반대하여 싸울 군대를 조직하였다.

뿔스까집단군은 루블린해방전투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조국 뿔스까를 강점자들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여러 군사작전에 참가하여英勇하게 싸웠다.

이처럼 조선의 혁명가들의 결정적인 역할에 의한 국제련합군의 편성은 국제적인 반

제반파쇼련합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반제반파쇼력량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세계사적사변이었다.

3. 결 론

국제련합군의 편성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국제련합군편성을 분기점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과의 공동투쟁단계로부터 조, 중, 소 세 나라 무장력의 련합을 내용으로 하는 폭넓은 공동투쟁단계으로, 국제반제반파쇼투쟁의 거창한 흐름에 합류하는 새로운 공동전선단계으로 넘어갔다고 말할수 있다.

국제련합군이 편성된 후 조선인민혁명군은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면서 대일작전준비를 급속도로 다그쳤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백두광야에서 련마해온 유격전법들을 더욱 완성하는 한편 정규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전법들을 익혀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을 담당한 주력군으로서의 정치군사적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갔다.

국제련합군을 조직하고 그것을 강화발전시키는 나날에 얻은 성과와 경험은 일제를 격멸하는 최후결전의 나날에는 물론, 그후 복잡한 정치정세하에서 주체적립장을 가지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합전선을 유지하고 확대해나가는데서도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혁명의 1세대들이 발휘한 고귀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국제련합군, 하바롭스크회의, 공동투쟁